과학기술자의 품앗이 방 KOSEN

글 _ 한선화 정보기술개발단장
shhahn@kisti.re.kr

과학기술자는 사귐성이 약하다. 오죽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단, 이과(理科) 인간은 빼고."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사이의 일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분야보다 사물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성이나 인간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로지 외길로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니 융통성 없는 독불장군으로 여겨질 만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놀기의 대가로 인식된 과학자들에게도 어울려 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가 있다. 연구 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인터넷 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KISTI에서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www.kosen21.org)는 그 좋은 예를 보여준다. 전 세계 40개국 4만 여명의 과학기술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매일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전문가들의 고귀한 지식을 얻어가는 사람들로 붐빈다.

"3T3-L1 cell 키울 때 plate에 lysine coating 이나 다른 ECM molecule coating 하시는 분 계시나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일반인들이 보면 암호와도 같은 이 질문은 "지식질의"코너에 올라온 내용이다. 이렇게 난해한 질문이 하루에도 십 수 건씩 올라온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개 24시간 안에 제공된다는 것이다. 답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뿐. 특별한 혜택도, 경제적 이득도 없다. 그런데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다. 새로운 실험을 위한 장비를 세팅할 때, 구하기 힘든 희귀한 샘플이나 시약이 필요할 때, 실험이 잘 안 풀릴 때 연구자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동병상련의 경험을 가진 다른 동료들의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그렇게 KOSEN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마법처럼 필요한 자료가 제공된다. 자료를 주고받는 자료요청 서비스는 하루에 120여 건에 이른다. 그러고 보니 과학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인간미"가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나 싶다.

지식은 나눌수록 더 큰 지식을 낳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은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이 중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즉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끌어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가이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눔의 철학"이다. 우리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에 답변을 주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유명 대학 교수, 제약회사 연구원, 해외 저명 연구소의 박사,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외길을 걸은 최고 기술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어려운 문제에 당면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나눔의 기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우리도 "도대체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답변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못해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 이 때 돌아온 답변은 "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때 도움이 절실했었다.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작은 도움을 드렸지만, 앞으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다른 분들이 도와주리라는 기대도 있다."는 대답이다.

제아무리 세상이 강퍅해지고 눈앞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의 미덕"이 살아있는 한 우리 사회는 훈훈할 것이다. 성공적인 지식기반 사회의 정착을 위해 사회 곳곳에 이러한 나눔의 장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이득이 없이도 지식의 전달과 습득, 그리고 나눔의 즐거움만이 최고의 동인이 되는 이러한 사례의 증가야 말로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지식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